

동성애자와 인간 존엄성

지난 6월 한달동안 한일 월드컵으로 전국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적(性的) 소수자들이 서울 이태원에서 '게이 퍼레이드'를 펼쳐 화제가 됐다. 행사는 전 국민의 월드컵 열기로 일반인의 관심도 뉴스의 각광도 별로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치러졌다.

6월 4일부터 11일까지 동성애자 인권연대 등 10여 개 성적 소수자 인권단체가 주최한 '제3회 퀴어문화 축제 무지개 2002'는 동성애자들이 힘들게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서울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상영된 동성애 영화와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사 갤러리에서 열린 동성애 기획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거리행진은 이번 축제의 절정이었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들은 이날 만큼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거리낌이 없다는 듯 거리를 당당히 활보하면서 나아갔다.

이번 행사는 특히 문예진흥원으로부터 문예진흥기금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점이 정부차원에서 동성애 축제를 보편적인 소수자 인권운동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인권현실은 아직도 어둡기만 하다. 홍석천과 하리수 등 유명 연예인들의 등장으로 언뜻보면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성애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이다.

동성애자 김모(25)씨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다못해 외국행을 결심하게 된 경우이다. 1년전 가족에게 커밍아웃(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했다가 집에서 쫓겨나 지금까지 친구집 등을 전전하고 있는

김씨는 "돈을 벌어 하루빨리 외국으로 나가는게 유일한 꿈"이라고 말했다.

남성 동성애자인 천모(32)씨는 노모의 칠순잔치에 게이친구 6명을 데리고 고향에 내려가 축가를 불러주는 등 커밍아웃을 한지 10년만에 친신만고 끝에 가족과 화합했다.

아직도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주변의 눈총 속에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아예 스스로를 숨긴 채 가슴졸이며 살아가고 있다.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들의 상당수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남성 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 공동대표인 박철민씨는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커밍아웃이 두려운 현실이며 성전환자들은 유흥업소 이외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지난 3월 국내 교과서와 사전에 실린 동성애 관련 단어 풀이가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비하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권연대측은 교과서에 사용되는 '동성연애자'는 '동성애자'로 바꾸어야 하며 상당수의 사전들이 '동성애'를 '동성끼리의 변태적 연애'로 풀이한 것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럽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덴마크는 동성애 커플의 결혼을 최초로 89년에 인정했고 93년 노르웨이, 94년 아이슬란드, 95년 스웨덴 등 북유럽나라들 대부분이 동성애간 결혼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나라는 결혼 허용과 함께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조롱하거나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벌금과 징역을 선고 할 수 있는 형법도 제정했다.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동성애자끼리의 결혼은 물론이고 이들 사이에 입양도 허용하는 법안을 2000년에 통과시켜 이성애 부부와 100% 똑같은 수준의 권리를 부여했다.

캐나다는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2년 이상 동거관계의 동성커플에 대해서는 이성부부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등 사회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하와이주는 96년 동성끼리의 결혼을 합법화했고 2000년 버몬트주는 동성커플을 실질적인 부부로 인정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레즈비언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의 며느리이자 문종의 두 번째 부인인 봉씨가 레즈비언이었다고 한다. 당시 궁내에는 시녀들간에 동침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만약 들키는 경우에는 최고 곤장 100대를 맞는 등 엄한 처벌을 받았다. 성격이 활발하고 술을 좋아했던 봉씨도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시녀들을 처소로 마음대로 불러들이다 화를 자초했다.

봉씨가 평소 다른 시녀와 동침을 즐기던 '소정'이란 시녀를 무리하게 처소에 들이려다 사건이 일어났다. 이 궁궐내 소란사건에 대한 국문에서 봉씨의 동성애 행각은 시녀들에 의해 여지없이 드러났다.

결국 봉씨는 친정 아버지에 의해 목숨을 잃고 친정 아버지 또한 자결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봉씨의 애정 행각은 막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은 4500명 가량이며 80년대말 성전환 수술이 도입된 이후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은 공식적 통계로만 4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가한 경우는 90년 청주지법의 결정 등 3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많은 성전환자들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이 성염색체 형태를 남녀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성애자 인

권단체 임태훈 대표는 "현행 호적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연예인 하리수씨의 등장과 함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요구가 높아가는 가운데 헌직 부장판사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종주(高宗柱)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한 논문을 통해 "헌법상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위해 성전환자들에게 호적정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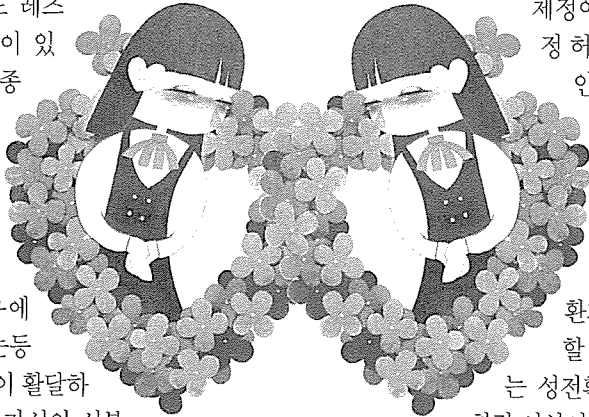
고부장판사는 이를 위해 성전환특별법의 제정이나 현행 호적법상 호적정정 허가요건을 확대 해석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성의 식과 성모럴의 일대 전환기에 와 있다. 이와함께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성전환자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됐다. 아직까지는 성전환자나 동성애자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를 직원으로 선발하고 성전환 연예인이 등장해 활동하면서 이들을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유연해진 측면도 있다.

우리 사회는 인권의 구현과 개인의 삶의 다양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성전환자나 동성애자는 우리사회의 소수이고 약자이지만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언제까지나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된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포함한 이들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고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7]



이광호 · KBS 해설위원